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5. 6. 8. Vol. 23

■ 농정이슈

한·중 FTA 정식 서명 및 3개국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등

■ 정책브리핑

정부, 3개국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및 국내보완대책

■ 연구지원

2014년 임가경제조사 결과

■ 현장여론

우량농지 보존에 대한 현장여론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 한·중 FTA 정식 서명 및 3개국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 **[한중 FTA 정식 서명*, 6.1, 서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오후청(高虎城, Gao Hucheng) 중국 상무부 부장, 영문본·한글본·중문본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 협상개시(2015.5.) 이후 3년 만, **가급적 조속히 한중 FTA 발효 추진**

※ 한·중 FTA 정식서명 계기, 양국 정상 간 친서 교환(6.1.) 통해 한·중 FTA에 대한 기대와 지지 재확인, 조속한 발효 위한 의지 표명

- **[정부,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6.4.]** 제출된 3개 FTA 비준동의안은 정식서명* 후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

※ 한·중국 FTA(2015.6.1.), 한·베트남 FTA(2015.5.5.), 한·뉴질랜드 FTA(2015.3.23.)

자료 : SBS-한국경제TV(2015.6.1.) / KBS-경향신문-국민일보-네일신문-news1-NEWSis-데일리안-동아일보-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투데이-조선비즈-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한국일보-헤럴드경제(2015.6.2.) / 농민신문(2015.6.3.) / KBS-SBS-YTN-한국농어민신문(2015.6.5.)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한중 FTA 정식서명, 중장기 미래 협력의 제도적 틀 마련」, 「한중 FTA 정식서명 계기, 양국 정상간 친서 교환」(2015.6.1.), 「정부,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2015.6.5.) / 청와대 뉴스_「대통령,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 접견 결과」(2015.6.1.)

□ 중국, TPP 가입 방안 문의

- **[오바마 대통령, TPP 중국가입 가능성 언급]** 미국 라디오프로그램 인터뷰(6.3.)에서 **중국이 TPP 타결된 뒤 가입하는 방안 문의**해 왔다고 밝혀

자료 : KBS-문화일보(2015.6.4.) / 국민일보-news1-NEWSis-서울경제-세계일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한국경제(2015.6.5.)

□ 국산딸기 캐나다 수출 가능, 흰우유(살균유) 중국 수출 재개

- **[농림축산검역본부, 2015.11.부터 국산딸기* 캐나다 수출]** 캐나다 측에 국산딸기의 수출 허용 공식 요청(2010.6.) 이후 5년간 검역협상 진행 결과, **최종 수출검역 요건 타결(5.27)**, 국내 고시 제정절차 진행 중

※ 2014년 417톤 수출

자료 : news1-NEWSis-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투데이-헤럴드경제(2015.6.2.) / 농민신문(2015.6.3.) / 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신문(2015.6.5.)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국산 딸기 올해 11월부터 캐나다 수출 가능!! - 한국산 딸기 생과일 캐나다 수출요건 타결 -」(2015.6.2.)

㉔ 농정이슈

- **[한국 흰우유(살균유) 중국 수출 1년 만에 재개]** 중국 정부의 「해외 유제품 생산업체 (품목) 등록제[※]」에 따라 한국 **살균유 품목 등록 완료(6.2.)**, 6월 중 중국 수출
 ※ 2014.5.1.부터 중국은 자국 정부에 등록이 완료된 유업체(품목)만 수입 허용
 자료 : MBC(2015.6.3.) / KBS경향신문news1NEWSis동아일보매일경제머니투데이서울신문세계일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데일리조선비즈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헤럴드경제(2015.6.4.) / 국민일보농민신문(2015.6.5.)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흰우유(살균유) 중국 수출 길 다시 열려 - 국내 3개 생산업체 살균유 품목, 중국 정부 등록 완료 -」(2015.6.3.)

□ 농수축산물 FTA 원산지 서류 및 인정품목 확대

- **[농수축산물 FTA 원산지 확인[※]으로 인정해 주는 서류 및 품목 대폭 확대고시, 6.1.]** △‘지리적 표시[※] 등록증’ 추가, △인정품목 수 확대(HS 6단위 기준, 481 → 1,027개 품목)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
 ※ ※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칭·품질 등이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등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 **(기대 효과)** 지리적표시대상인 지역명품특산물(나주배, 청양고추 등)의 FTA체결 국가로의 해외진출 용이, 특히 한중 FTA 발효 앞둔 시점에서 중국 진출 확대

【FTA 원산지 인정서류 및 품목수 확대】

구 분		현행(3.15.~)	확대(6.1.~)
인정서류	3종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4종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 지리적 표시 등록증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	
인정품목	481	녹차, 사과 등	1,027 청양고추, 나주배 등
수해농가		17만 가구	30만 가구

자료 : 문화일보(2015.5.29.) / news1NEWSis아시아경제이데일리헤럴드경제(2015.5.30.) / 한국농어민신문(2015.6.5.)
 참고 : 관세청 보도자료_「농수축산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정품목 및 서류 확대 - ‘지리적 표시 등록증’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2015.5.29.)

□ 수입 쌀로 수출제품 가공 시 미리 신고해야 관세 환급

- **[관세청,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6.1.]** 높은 관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벼, 쌀(현미, 매향, 찰쌀), 쌀가루 등으로 제품 만들어 수출할 때, 수출물품 만들기 전 미리 세관에 신고해야 수입 시 납부한 관세 환급
 ※ 이번엔 추가된 수입쌀 이외에도, 고추, 참깨 등 수입 시 높은 관세를 적용되는 256개 농림축산물 품목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환급절차 관리하는 고시를 운영 중

㉔ 농정이슈

- **(과다환급 방지 및 국내 쌀 생산 농가 보호)** 낮은 관세를 적용된 수입쌀로 수출품 만들었으나, 높은 관세를 적용된 쌀로 만든 것으로 허위 신고해 과다환급 등 시장 교란 행위 근절로 농어민 피해 최소화, 농림축산물 양허 관세율 정책 실효성 제고
 자료 : KBS(2015.5.31.) / 아시아경제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헤럴드경제(2015.6.1.) / 한국농업신문(2015.6.5.)
 참고 : 관세청 보도자료_「수입 쌀로 수출제품을 만들 때는 미리 세관에 신고해야 관세 환급 ‘과다환급 방지’ 및 ‘국내 쌀 생산 농가 보호’ 조치 시행」(2015.5.29.)

□ 농산물 원산지 위조 시 과징금 최대 3억 원

-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자 형사처벌 외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도 추가 부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6.4.)**,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차원에서 (기존) 1억 원 이하 벌금 → **(개정[※]) 기존 벌금 + 과징금(위반금액 5배 이하, 최대 3억 원) 부과**
 ※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의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상당히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되는 결과는 낮은 벌금 수준에 그치는 점 감안
 자료 : KBS(2015.6.4.)YTNNEWSis매일경제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투데이-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헤럴드경제(2015.6.1.) / 경향신문(2015.6.2.) / 농민신문(2015.6.3.) / 농축유통신문-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신문(2015.6.5.)
 참고 : 농식품부해양수산부 보도자료_「“이제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벌던 시절은 끝” - 2015.06.4일부터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반금 -」(2015.6.1.)

□ 농지연금 가입제한 완화...농가 3만 호 혜택 전망

-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3.]** **농지면적 기준 폐지해 농지연금[※] 가입제한 완화**, 2014년 ‘가입연령 완화[※]’에 이은 또 하나의 가입조건 완화 조치
 ※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 지급(2011~)
 ※ ※ (기존) 부부 모두 만 65세 → (개정, 2014.5.) 가입자만 65세 이상
 - **(주요 내용)** △소유농지 3ha 초과 시 가입 제한 규정 폐지[※], △기간형 가입자의 연령제한 근거 명확화[※]
 ※ 농지가격은 지역별로 편차가 큼에도 농지면적 기준 가입 제한은 地價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려는 취지
 ※ ※ 현재, 농지연금 사업취지인 사망 시까지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간형 가입자의 가입 연령을 사업지침에 의해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 규정 마련

㉔ 농정이슈

- **(종전형)**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지급받음. 65세 이상 가입 가능
- **(기간형)** 일정한 기간(5년 78세 이상, 10년 73세 이상, 15년 68세 이상 가입 가능) 동안 연금 지급

자료 : YTNnews1:NEWSis아시아경제아주경제연합뉴스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2015.6.3.)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지연금 가입제한 완화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5.6.3-7.13)-」(2015.6.3.)

□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착수

-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위해 농식품부-농협손해보험-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간 2015년 시범사업 약정체결, 6.5]** 2015년 **콩(6월~), 양파, 포도(11월~)** 3개 품목 시범사업 실시**

※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와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영안정제도

※ ※ (2013) 1차 도상연습(양파, 콩, 포도, 시설오이, 배추, 한우) → (2014) 2차 도상연습(벼, 마늘, 고구마, 감귤, 시설토마토 추가) → (2014.11.) 농식품부, 도입 추진 보도

자료 : 문화일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헤럴드경제(2015.6.4.) / 경향신문-농민신문-농축유통신문-매일경제-중앙일보-한국경제(2015.6.5.)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착수 - 농업재해뿐만 아니라 가격하락 위험까지 관리하는 농가경영안정 기틀 마련 -」(2015.6.4.)

□ 돼지고기 가격 안정 위해 지급률 인하 추진

- **[농식품부-한돈농가 공동, 돼지고기 가격 인하 캠페인 추진, 6.1~]**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kg당 5,500원 이상, 6,000원 이상 상승할 때 지급률* 각각 1~2% 인하****해 소비자가격 안정 유도

※ 업체와 농가 계약 시 출하체중의 지육중량 적용 비율(박피 65~69%, 탕박 70~75% 수준)

※ ※ ex) 5,500(원/kg)에 형성된 돼지 110kg 도축 시 지급률 1% 인하할 경우 한 마리당 약 6,000원 가격 인하 효과 발생

- **(추진 배경)** 돼지고기 공급량이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 상승하고 있어 가격인하 캠페인과 함께 가격안정대책 단계적 추진

※ 돼지고기 총공급량(2015.1.~4.): 43.3만 톤(전년대비 13.9%↑), 전년대비 국내산 2.4%↓, 수입량 59.1%↑ 삼겹살 공급량 총 11.4만 톤(국내산 5.7, 수입산 5.7), 전년 동기대비 8.2%↑

자료 : KBS/MBC/YTN(2015.6.1.) / news1:NEWSis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이투데이헤럴드경제(2015.6.2.) / 한국농어민신문(2015.6.5.)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식품부-한돈농가 공동,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나서!” - 1kg당 6,000원 이상일 때 2%, 5,500원 이상일 때 1% 각각 지급률 인하 -」(2015.6.2.)

㉔ 농정이슈

□ AI 발생 주요 동향

- **[AI 발생 동향*, 6.4. 기준] △총 832건(양성 184, 음성 644, 검사 중4), △살처분: 229농장 5,041천 수**

※ 경기 양주 시도원에서 오리 AI 확진(5.29.)

자료 : 국민일보(2015.5.30.)

참고 : 농식품부 자료_「AI 방역추진상황(6.5.)」(2015.6.5.)

- **[가축질병 방역실태 상시점검 실시, 5.1~상시(연중)]** 가축질병 발생한 곳 중심으로 추가 발생 방지 및 인근 농장으로의 전파 차단 위해 축산관련 개별법령* 준수여부 점검
※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가축분뇨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사료법, 폐기물관리법 등

자료 : NEWSis머니투데이아시아뉴스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데일리파이낸셜데일리(2015.6.1.) / 한국농어민신문(2015.6.5.)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구제역·AI 방역실태 상시점검 실시 - 구제역·AI 상시예방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중앙점검반 합동 점검 -」(2015.6.1.)

- **[가축방역 취약지역 관리강화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 5.29.]** 주요 법률 개정내용으로, △적정 방역관 확보 및 소독설비 설치대상 확대, △이동제한 대상에 가축 외에 오염물품 추가, △벌칙 등 부과기준 상향조정 등 보완, △살처분 보상금 감액규정 구체화 및 경감규정 마련 등

자료 : NEWSis머니투데이서울신문세계일보연합뉴스이데일리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헤럴드경제(2015.6.1.) / 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2015.6.5.)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가축방역 취약지역 관리강화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2015.6.1.)

정부 3개국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및 국내보완대책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2015.6.5.)

□ 개요

- [정부,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6.4.] 제출된 3개 FTA 비준동의안은 정식서명* 후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

※ 한·중국 FTA(2015.6.1.), 한·베트남 FTA(2015.5.5.), 한·뉴질랜드 FTA(2015.3.23.)

□ 영향평가 주요 내용

- [개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 참여해 FTA 발효에 따른 실질 GDP, 고용, 세수효과 등 거시효과와 수출, 생산 등 산업별 영향 분석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

구분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거시 지표	실질 GDP *10년 누적	0.96%	0.01%	0.03%	
	소비자 후생 *10년 누적	146.26억 달러	1.46억 달러	2.96억 달러	
	고용 *10년 누적	전체	53,805명	671명	952명
		제조업	2,897명	112명	43명
		농수산업	△160명	△33명	△55명
		서비스업	51,067명	592명	964명
	세수 증감 *10년 평균	0.27조 원 증:1.69조 원 감:1.42조 원	△267.4억 원 증:175.7억 원 감:443.1억 원	△215.9억 원 증:562.4억 원 감:778.3억 원	
수출입 *15년 평균 (한중 20년 평균)	전체	4.33억 달러 4.5억 달러 수출: 46.7억 달러 수입: 42.2억 달러	1.11억 달러 1.18억 달러 수출: 1.35억 달러 수입: 0.17억 달러	0.62억 달러 0.73억 달러 수출: 0.78억 달러 수입: 0.05억 달러	
	농림업	△0.075억 달러	△0.011억 달러	△0.097억 달러	
	수산업	△0.093억 달러	△0.06억 달러	△0.017억 달러	
	생산액 *15년 평균 (한중 20년 평균)	제조업	1.39조 원	0.46조 원	0.27조 원
		농림업	△77억 원	△47억 원	△237억 원
수산업		△104억원	△54억원	△21억 원	

□ 국내보완대책 주요 내용(농업 분야)

- [정부,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로 인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과 「한·뉴질랜드 FTA 국내대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 발농업, 임업, 양봉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대책 수립, 중장기적으로 첨단화·융복합 및 수출확대, 안전망 구축 등 미래성장 산업화 방향 제시

구분	생산감소(2016~2035년)	투융자금모(2016~2025년)
농림업	2,245억 원	2,259억 원(한중 1,595, 한베 664)

- [발농업 경쟁력 제고: 1,165억 원] 2025년까지 주요 20개 발작물 주산지에 발 공동경영체 100개소 육성, 발기계화율 85%*까지 제고, 농가소득안정 위해 수입 보장보험 도입
- ※ (2014) 56.3 → (2017) 65 → (2025) 85%
- [임업·양봉업 경쟁력 제고: 974억 원] 주산지별 산림작물생산단지 확충*, 천연꿀 (꽃꿀)과 사양꿀(설탕)의 구분** 명확화, 꿀 품질관리 강화해 소비자 신뢰 제고
- ※ 작물생산단지: (2014) 181 → (2025) 320개소
- ※※ (현행) 벌집꿀, 벌꿀 → (개정) 벌집꿀, 벌꿀, (가칭) 사양꿀
- [농수산물 수출기반 강화: 514억 원] 시장개척 위한 정보조사와 전략적 마케팅 지원, 주요 해외 소비지에 신선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냉장·냉동 공동 물류센터 확충

<한·뉴질랜드 FTA>

- 기 수립된 「한·영연방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2014.9.)을 기본으로 하되, 한·뉴질랜드 FTA 타결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추가 보완책 마련

생산감소(2016~2030년)	투융자금모(2016~2024년)
3,558억 원	3,523억 원

주: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낙농 중심으로 영연방 FTA 대책기간인 2016~2024년 9년간 3,523억 원 추가 지원

- [축산업 생산: 2,886억 원]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경영체 지원, 국산원유의 가공원료유 지원 확대*, 국산원유를 이용하는 유업체 등의 경쟁력 강화 지원
- ※ 생산비와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국산 원유의 가공원료유 공급을 뉴질랜드 탈·전지분유 TRQ수입물량 수준(연간 1,700톤) 만큼 추가 공급
- [축산물 유통·소비: 490억 원] 축산자조금 지원 확대 통해 국산 유제품 인지도 제고와 한우·한돈의 수급조절기능 강화 추진, 무슬림 시장 개척 위한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 지원

연구지원 2014년 임가경제조사 결과

자료 : 산림청(2015.6.2.)

□ 개요

- [산림청, '2014년 임가경제조사' 결과 발표, 6.2.] 2004년 임가경제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소득으로, 2014년 최초로 임가소득 3천만 원 넘었으며, 땀은감, 호두 등 전체적으로 임업종수입이 증가한 데 기인
※ 조사대상 및 기간: 1,115임가 / 2014.1.1.~12.31.

□ 주요 내용

- [임가소득] 3,106만 원, 전년대비 3.7%↑, 수실류, 약용 작물, 채취 임산물 등 전체적으로 임업종수입 증가한데 기인
- [가계지출] 2,651.9만 원, 전년대비 1.7%↑, 휴양/문화, 음식/숙박 등의 소비지출은 증가한 반면 조세, 국내학생가구수금 등의 비소비지출은 감소
- [자산] 3억 9,378.2만 원, 전년대비 2.4%↓,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 모두 감소
- [부채] 3,118.2만 원, 전년대비 2.1%↓, 임업용 부채 0.8%↓, 임업용 이외 부채 2.7%↓

■ 최근 5년간 임가경제조사 주요지표 현황 ■

단위: 천 원, %

구분	2010년	구성비	2011년	구성비	2012년	구성비	2013년	구성비	2014년	구성비	증감률 (2014/2013)
임가소득	27,678	100.0	28,471	100.0	29,609	100.0	29,958	100.0	31,058	100.0	3.7
경상소득	25,026	90.4	25,803	90.6	26,898	90.8	27,505	91.8	28,843	92.9	4.9
임업소득	7,699	27.8	8,055	28.3	8,487	28.7	8,315	27.8	9,761	31.4	17.4
임업외소득	12,424	44.9	12,317	43.3	13,185	44.5	13,787	46.0	13,382	43.1	-2.9
이전소득	4,903	17.7	5,431	19.1	5,226	17.7	5,403	18.0	5,701	18.4	5.5
비경상소득	2,652	9.6	2,669	9.4	2,711	9.2	2,452	8.2	2,214	7.1	-9.7
가계지출	24,125	-	25,636	-	25,460	-	26,085	-	26,519	-	1.7
전임임가	2,188	-	3,229	-	2,708	-	3,522	-	4,186	-	18.9
겸임임가	3,055	-	2,969	-	3,061	-	2,965	-	3,025	-	2.0

- (임가소득) 임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소득
- (임업소득) 임업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 (이전소득) 임가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공적보조금(연금 등)과 사적 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전임임가) 영리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임업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가구
- (겸임임가) 영리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임업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

현장여론 우량농지 보존에 대한 현장여론

자료: KRE리porter를 대상으로 장익정보실 자체 조사

※ 본 자료는 연구원이 전국 시군에 농업경영인 1명씩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KRE리porter가 보내온 농촌 현장 여론과 정책제언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가감 없이 요지만 정리하였으며, 연구와 정책에 활용되길 바랍니다.

□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5. 5. 1. ~ 5. 31.(총 20건)
- 수집대상: KRE리porter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수집

□ 우량농지 보존에 대한 현장여론

- 우량농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되기 쉬워 불법전용 방지가 중요함. 법령을 제정비 하고 불법 전용에 대한 엄정한 규제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임. 효율이 낮은 농지도 수리시설과 도로 등의 인프라 확충으로 개량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량 농지를 확대해야 함. 농지는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김인남, 경북 상주>
- 농지를 개발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실상 정부의 정책이었음.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의 하락은 우량농지 보전법이 미약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중요한 무기가 되는 농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 생각함. 식량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우량농지 보전에 힘쓰고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김용덕, 경기 남양주>
- 기후변화와 국제곡물가격 불안정 등 앞으로 농업의 위기와 식량대란이 가까워 질 것인데 지금처럼 농지를 무자비하게 남용한다면 식량안보 위기가 더 빨리 올 것임. 농지를 비옥하게 보존하여 식량자급을 최우선 농업정책으로 펴야 할 것임. 또한 농업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고령화되므로 밭농사도 기계화 되어야 하는데 논 가운데 덩그러니 건물이 세워지니 기계화, 항공방제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농지관리계획을 재정립하여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 자연녹지 등을 더욱 세분화하고 구획을 나누어 집산화하여 관리해야 함.<임충빈, 경기 안성>

㉔ KRE리포터 현장여론

- 우량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하우스, 주택, 축사 건축 등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우량농지 훼손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우량농지 전용허가 및 신고 기준을 재정립해 주길** 바람.<김종근, 전남 순천>
- 우량농지는 그린벨트 정책처럼 개발을 가급적 지양해야 하며, 우량농지를 훼손했을 때는 산지 등을 전용하여 대체농지를 추가로 개발해야 할 것임.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매매가 방임되어 영농을 하지 못했을 때 몇 년 내에 농지로서의 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 가끔 발생하기도 해 **농업의 목적의 매매를 지양하도록 법을 강화해 보존해야 할 것임**.<배병열, 전남 무안>
- 우량농지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배수시설 설치, 농로 포장, 외부인의 투기 목적 매매를 금지해야 함.<유영순, 충남 서산>
- 경매처분 나온 논을 낙찰 받는데 농업인을 제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가 취득한 사례가 있었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낙찰가를 높게 써낸 자에게 낙찰한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농사를 지을 의지나 여건 없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내어 주는 것은 농지법, 부동산 관련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농지는 농업인 또는 영농회사법인만이 구입 가능하도록 제한해야** 함.<임충빈, 경기 안성>
- 1980년대만 해도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농지가 잘 보존되었음. 축산도 농업이라고 법제화되면서 허가가 아닌 단순신고만으로도 축사 설치가 가능해졌고, 농지 한 가운데 띄엄띄엄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농사를 위한 항공살포 작업에 방해가 되고 약취 및 폐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해 농지훼손이 심각함. **축산은 농업과 별개로 분류하고 축사 건축은 신고가 아닌 적정 수준에 맞는 허가 방식으로 변경해야 우량농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임**.<연규석, 경기 평택>
- 전국 지자체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해 무분별하게 우량농지를 잠식하고 있어 농지 감소에 대해 우려가 큼. **우량농지 소유주에게 세제혜택 또는 다소의 보상책을 마련해서라도 정부차원의 유지관리가 필요함**. 농지는 농민의 근본이자 국토보전,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재산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김병철, 경남 김해>
- 농산물 수입이 매년 증가해 농산물가격이 하락하고 농촌의 고령화, 농업 부대 비용(인건비, 비료, 농약, 농기계 운영)이 크기 때문에 우량농지를 다용도로 전용해 부가 가치를 높이려는 유혹이 상존해 있음. FTA 등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경쟁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어 농지문제를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하기보다 향후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량농지의 철저한 보존, 그에 상응하는 대책 강구가 필요함. **농지 보존에 따른 보상으로 직불제 상향 조정,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지원금 확대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임영애, 제주 제주 외 1>

㉔ KRE리포터 현장여론

- 농촌진흥구역은 법에서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한정적임. 농산물가격이 매년 하락해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 가격을 올려야 하며 **농지 보존책 존속을 위해서는 농지 소유주에게 서민 기초생활비를 지원해야** 할 것임.<김상우, 제주 서귀포>
- 우량농지 중 작물에 따라 토지이용변경에 제한이 있는 곳이 있음. 농지 소유주가 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보존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농지를 쉽게 포기하거나 변경 또는 매각하는 일이 없을 것임. **우량농지 보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함**.<조경연, 경남 함천>
- 타 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농업의 소득구조와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업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농사를 독려하지 않고 농지보전만을 거론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처사임. 농지는 개인 소유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산권을 묶어 두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실정임. 정부는 현행 직불제를 상향 조정해 지급하고 생산비에 맞춰 벼 수매가 인상, 정부 수매 확대를 통해 농업을 보호, **농업인은 농업에 소신을 갖고 비옥한 농지에 생산에 전념하면 농지는 자연히 보존되어 나갈 것임**.<이길숙, 경기 안성 외 1>
- 우리나라 주식량 작물인 벼를 재배할 농지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농지 훼손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임. 쌀값이 너무 싸니 논농사를 포기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하니 **농업의 소득구조 등 본질적인 농업문제 해결이 농지 보존을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생각함.<유영조, 강원 영월 외 1>
- 쌀 소비량 감소, 식생활 변화가 있어도 국민의 최소 식량작물 공급차원에서 농지 확보는 반드시 필요함.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지에서 생산해야 하는데 사유재산인 농지를 보존해야 한다며 전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만으로는 보존대책이라 할 수 없을 것임. 가능하면 **국가에서 우량농지를 사들여 보존하는** 것이 좋겠음.<오형동, 전남 해남>
-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우량농지 확보는 매우 중요하나 외부인의 투자 목적 외에 귀농·귀촌 증가와 다양한 농업관련 사업기회 제공, 농업의 6차산업화, 체험형 관광수요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망함**.<노웅곤, 전남 나주>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기획조정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